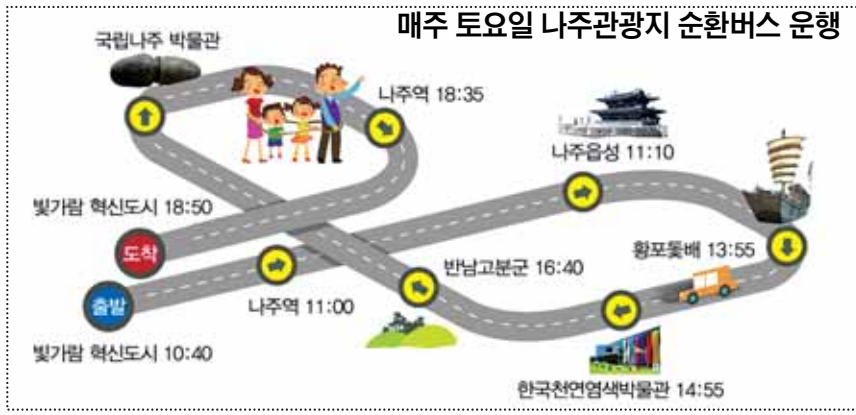


# 감성여행 종결지

## 나주로 마실가자



나주시가 '나주로 마실가자' 감성여행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완공으로 KTX 호남선 완전개통 등에 따른 늘어나는 국내외 관광객을 시티투어를 통해 나주로 흡수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여행 전문업체인 금호고속관광에 운영을 위탁하고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1회 운영하게 된다. 투어 코스(53.3km)는 '빛가람 혁신도시' LH 3단지 앞에서 출발해 나주역→나주읍성→황포돛배 승선→한국천연염색 박물관→반남 고분군→나주 박물관→나주역→빛가람 혁신도시 등 8곳을 경유한다.

### 나주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4월25일~9월12일

◇버스타고 나주역사 속으로=투어 버스는 오전 10시 50분 도착하는 KTX 하행선 관광객에 맞춰 11시 나주역을 경유한 후 나주 읍성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려 때 축조돼 조선까지 나주목(牧)의 치소(治所)로 행정의 중심지였던 나주읍성은 길이는 3.7km가 넘고 내부 면적이 30만평에 달하는 호남 최대 도시였다. 읍성에는 동서남북 방향에 4대문(동점문, 서성문, 남고문, 북망문)이 있었는데, 복원 중인 북망문을 제외하고 모두 복원됐다.

읍성 남쪽에 위치한 '남고문(南竈門)'은 문을 나서면서 왕을 상징하는 금성관을 뒤 돌아본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또 관광객이 투어버스에서 나주읍성에 첫발을 내딛는 '동점문'은 영산강에 바로 접하고 있어 나주로 들어오는 제1관문 역할을 했다.

1375년(고려 우왕 1년) 나주로 유배온 삼봉 정도전은 동점문에 올라 나주를 '남방의 거진(巨鎭)'이라 일컬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고 한다. '서성문'은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군이 서성벽을 넘지 못하고 전멸했던 곳으로, 4대문 중 가장 슬픈 사연을 담고 있다.

관광객이 읍성 내에서 집중적으로 탐방할 곳은 목(牧)문화관과 금성관, 금학현, 나주향교 등이다.

금성관(전남유형문화재 제2호)은 고려에서 조선까지 지방 공실로 전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함을 자랑한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 선생은 호남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킬 때 금성관 정문인 망화루 앞 광장에서 출병식을 가졌다고 한다.

읍성 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나주목사내야 금학현. 금학현은 전라도 일대를 다스리던 목사가 머무르던 관사인 살림집으로, 조선시대 20개 목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다.

금학현은 2009년부터 관광객이 목사가 되어 목사 내야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한옥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KBS '1박 2일' 촬영 이후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곳은 자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명당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금학현을 나와 골목길을 한참 거닐면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던 나주향교가 나온다. 나주향교는 현존하는 향교건물 중 전국 최대 규모이다. 대성전은 건물의 크거나 모양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 중 으뜸으로 인정받아 보물 제394호로 지정됐다.

◇영산강 황포돛배 뱃놀이도=시티투어는 금성관 주변 나주공탕 골목에서 점심을 마치고 영산포 선착장으로 이동해 나주여행의 백미인 황포돛배 뱃놀이를 할 수 있다.

황포돛배 승선체험은 영산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국천연염색 박물관이 있는 회진에서 하선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천연염색 견학과 염색 체험을 할 수 있고 인근의 마지막 코스인 국립 나주박물관이 위치한 반남 고분군을 둘러볼 수 있다.

나주에는 100여기의 고분이 남아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형태다. 2m 이상의 웅관에 시신을 넣어 묻고 45m가 넘는 거대 고분군을 조성했다.

또 나주박물관은 전남 유일의 국립 박물관으로 영산강 유역을 따라 남아있던 선사시대인들의 아름다운 유물과 그들의 옛 문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반남 고분군에 자리하고 있는 박물관은 자연 속의 문화공간으로 국립박물관 최초로 수장고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시티투어는 관광객들은 박물관의 내부 전시유물 관람을 마지막으로 KTX 6시 45분 상행선에 맞춰 나주역을 경유한 후 출발지인 혁신도시에서 막을 내린다.

시티투어의 이용요금은 버스 탑승료 5000원과 황포돛배 승선료 5000원 등 총 1만원이다.

또 읍성권 투어 및 천연염색 박물관, 나주박물관 입장료는 무료이며, 천연염색 체험료 및 식비는 개인 부담이다.

한편 시티투어 예약은 나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naju.go.kr)이나 금호고속 버스한바퀴(www.kumhoaround.com), 하나투어(www.hanatour.com), 웹투어(www.webtour.com), 넥스트투어(www.nexttour.com)에서 할 수 있다. 문의(061-339-8593).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읍성



나주천연염색박물관



반남고분군



국립나주박물관



황포돛배



한옥체험장 금학현

## 영산포 흥어 거리 전봇대 사라진다

지중화사업 6월말까지 완료

나주 영산포 '흥어 거리' 흥물로 지체돼 온 전봇대가 사라진다.

나주시는 "영산포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영산대교에 이르는 '흥어거리' 470m 구간을 대상으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나주시와 한국전력, KT, 통신사업자연합이 참여해 6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중화 공사 이후 흥어거리 도로정비와 함께 LED 가로등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관조성 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중화 사업과 도로 정비 사업은 영산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라며 "흥어거리와 죽전 골목, 선창거리가 정비되면 영산포가 말끔히 단장된 속에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 금성중 학생 100여명

### 8362부대 방문 체험활동



나주 금성중학교 학생과 교사 100여명이 지난 21일 '진로테마 학습일'을 맞아 공군 제1방공유도단 여단 제8362부대를 방문해 체험활동을 가졌다. <사진>

나주 금성중 학생들에게 내 고장 군부대 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는 부대 소개와 함께 생활관·복지시설 등을 견학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또 학생들은 경계경보 발령시 발사대 부대원들이 장비를 작동하고 점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원 임무 절차를 체험하기도 했다.

인솔교사로 참가한 박권수(54) 교사는 "이번 방문으로 지역 군부대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군인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8362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지역사회의 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63년 전통의 광주·전남 대표신문 光州日報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창사 63주년

# 광주일보 63년, 미래를 밝힐 '100년 신문'으로

광주일보 창사 63주년을 축하합니다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이학재 아로마라이프 대표이사) 원우 일동

광주일보는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각분야에서 활동하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1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학기 강사진

- |  |  |   |  |  |
|--|--|---|--|--|
| <br>장하성 교재교수 | <br>표창원 은평대 교수    | <br>김두규 무지개 교수 | <br>봉만대 영희대       | <br>김명관 현 부안    |
| <br>이명도 K    | <br>김진에 현 국회미래연구원 | <br>백병우 사자대    | <br>최명석 인사조직 연구소장 | <br>서민 연세대 과학교수 |

성공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리더들의 고품격 네트워크

Leaders Academy